

제156호

발행일 : 서기 2022년 8월 30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단모부 비’ 건립, 총렬공 중시조 경륜과 문학적 재능 조명!



종친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질병 위기가 지나가나 했더니 기쁨과 산불, 폭염과 폭우로 이어지는 기상이변이 또 우리의 일상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심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중회는 그동안 안동의 묘역관리를 꾸준히 해오면서 새로 단장한 능동 관리사에 이종태씨 부부를 새 관리인으로 입주 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회곡동 상락재사 보수 및 화장실 개량공사 건을 의결하였고,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시행해오던 휘경동 임대료와 종친회비 등을 주위 시세와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안을 의결하고 명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숙원사업이었던 ‘능동사적비(陵洞事蹟碑)’ 건립과 함께, 총렬공(휘 방경)께서 받으신 상락군개국공의 공작 작위를 축하하는 동안거사 이승휴의 ‘단모부(旦暮賦)’와 총렬공께서 지으신 ‘답부

(答賦)’에 대한 비석을 능동에 건립하여 안동시제에 맞춰 제막하기로 의결하고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명문의 ‘단모부’와 ‘답부’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신 총렬공 중시조님의 경륜과 능력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널리 조명되고 평가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중회가 발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종친여러분과 임원님들의 협조와 후원이 큰 원동력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회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가족 모두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실의 계절에 힘들었던 일상은 잠시나마 잊으시고 뜻깊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친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

2022년도 세일사 일정표

순서	제향위	음력	양력	주소
1	총렬공 휘 방경	음 10.9	11.2 수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2 능동재사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음 10.9	11.2 수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6
2	문영공 휘 순	음 10.7	10.31 월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51 (경모재)
3	양간공 휘 승택	양 10월 셋째 일	10.16 일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정)
	상락군 휘 묘			
	문온공 휘 구용			
4	문숙공 휘 영돈	음 10.6	10.30 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74
	상락백공 휘 진 제학공(익달)			
5	정간공 휘 영후, 영삼사공 휘 천 안렴사공 휘 사렴	음 10.5	10.29 토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167 (영모재)
6	밀직사공 휘 철우	양11첫째 일	11.06 일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산27-1
7	개성윤공 휘 칠림	양10둘째 일	10.09 일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1
8	전서공 휘 성목	음10월 초정	10.31 월	세종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496-1
9	부사공 휘 천순	음 10.16	11.09 수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10	안정공 휘 구덕	음10첫째 일	10.30 일	여주시 가남읍 삼정길 43-7 (송림리 산67)
11	도평의공 휘 구정	음 10.4	10.28 금	의성군 점곡면 만취당길 17 (만취당)
12	익원공 휘 사형	음 10.6	10.30 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49 (낙포재)
13	서운관정공 휘 수	음 10.1	10.25 화	의왕시 학의로 552, (광곡재)
14	정의공 휘 철	양11둘째 일	11.13 일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32

회장단 회의 성료



- 안건 : 안건상정에서 대총회장이신 김석한의장은 ①회칙 개정안을 설명하여 의결하고, ②회곡동 상락재사 보수 및 외부 화장실을 철거하고 관리사 내부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했으며, ③국중도 안동김씨문고 장서용 고문서 기증 건에 대해서는 국학진흥원 기탁 건과 대총회 자체 도서관을 만들어 소장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여 자문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④능동의 사적비와 단모부비 건립에 관한 건 역시 자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동의 를 받아 이에 따른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⑤휘경동 건물 임대료와 ⑥임원회비 인상 건을 의결하여 명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일시 : 2022년 6월 08일(수) 11시
- 장소 : 인성빌딩 4층 회의실 (김석한 대총회장 광장동 사옥)
- 참석 : 28명
- 내용 :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면서 대면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사무총장은 참석하신 부회장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소개를 하였으며, 순서에 의해 김석한 대총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사무총장은 회의자료집을 배포하고 금년 상반기 이루어진 업무보고와 안동 관리사 준공보고가 있었다.

기타 안건에서는 결원이 된 감사후보자에 전서공파 김현덕씨의 추천이 있었고, 능동 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이종태씨를 소개하여 약정을 맺기로 하였으며, 임원회비 및 통상회비 조정안 과 임대료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정안대로 점차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갈비탕으로 식사를 하며 여담을 나누고 귀가했다.

안동김문을 빛낸 서봉 김사달 작품을 만나다.



장, (군)태영 대총회사무총장, (익)태철 대총회사무부총장 등이 서화전에 참석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청주중친회는 안동김씨 6개 종파의 종친으로 구성된 지역중친회로 올해로 창립 74주년이 되었다. 관람을 마치고 시립미술관 인근 식당에서 청주중친회에서 제공한 추어탕과 추어튀김으로 푸짐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해산한 뒤 옛 충청병마절도사 영문인 정곡루(正鵠樓)와 아직 복원되지 않은 청주읍성 동·서·남·북의 4대문 터 표지석과 남문로에 있는 용두사지철당간(국보41호)을 둘러보고 귀가했다.

김사달 목적비(金思達墨蹟碑)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산 7-41에 위치해 있다. 진등고개 마루에서 북쪽으로 보이는 산기슭에 묘소와 비가 있다. 목적비는 한국예술헌단체총연합회, 충청일보사, 서봉목적비건립위원회에서 1984년 10월에 건립하였다. 이 목적비의 건립 위원장이었던 예충의 조경희 여사는 건립 취

지를 밝힌 글에서 “중국은 물론 이웃 일본에도 개인의 목적비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목적비가 서게 된 것을 저희들도 경하해 마지 않는다.”라고 기록 하였다. 전면의 글씨는 일중 김충현의 글씨이며, 후면과 측면의 글씨는 서봉 김사달 박사의 친필이다. 후면의 글씨는 적벽부의 내용을 초서로 썼고, 측면에는 같은 내용을 해서로 쓰고 한글로 해설하였다.

안동김씨중친회는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정상수 학예실장의 안내에 따라 서봉 김사달박사 서화전 ‘서예인생’을 관람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안렴사공(휘 사림)의 후손인 서봉 김사달 박사는 1928년 충북 괴산 청천 출생으로 청주사범대학교 강사와 세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서울 수도의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회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주문화원, 괴산문화원에서 서예 개인전을 개최했고, 국전 추천작가로 의사로 교수로 서화가로 수필가로 정치가로 팔방미인이셨던 서봉박사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수 많은 작품과 재미있는 일화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의 교훈이 되고 있다.

주요 금석 현판으로 청주 상당공원, 청주 상당산성의 진동문, 미호문, 공남문, 돈화문, 괴산 청천에 서봉 김사달 목적비 등 다수의 금석문과 『서봉김사달박사 서화문집』을 남겼다. 이날 청주중친회(회장 태성, 익) 주관으로 이루어진 관람회는 모두 17분의 종인이 참석했다. 청주중친회에서는 태성회장을 비롯하여 (익)태길 고문(제)한용·평응·석웅·현구·윤희씨 등이 참석했고, 제학공파에서는 태현 문영공중회 회장, 규원 파종회장, 재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안렴사공파에서는 선희 명예회장, 현수 사무국장, 사부이사 등이 참석했고, 윤만 문온공파 회장, (익)태용 수원참의공 회

익원공파종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2022년 5월 18일 영등포구 신봉역앞 백악관웨딩컨벤션에서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제53회 이사회회를 겸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錫漢 대총회장을 비롯하여 대총회 명예회장인 도평의공파 鳳會님, 판서공종회장인 전서공파 春教님, 문영공종회장인 제학공파 泰憲님과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장인 泰成님, 대총회 사무총장인 군사공파의 泰榮님과 전 대총회 사무총장인 안렴사공파 觀默님과 안렴사공파종회 사무국장인 炫秀님이 참석하여 주셨으며 군사공파종회 俊會 회장님은 시간관계상 참석을 못하셨지만 축하의 난화분을 보내주셨다. 파종회에서는 전임회장 在稼님과 명예회장 在永님등 전체 110여명의 종친분들이 코로나의 방역을 챙기며 전국각지에서 참석하여 2년여만의 회의를 빛내어 주었다. 총



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승인되고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在男 회장의 후임으로 8여년간 파종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榮秀님께서 제25대 익원공파종회 신임회장에 선임되었으며, 신임 감사에는 국방대학원 교수를 지낸 達洙(孝)님과 전남도청 서기관을 지낸 泰煥(參)님이 선임되었으며 신임 사무국장엔 泰連(孝)님의 임명되었다. 또한, 차기 회장은 주로 고창 지역에 세거하는 부령공에서 맡기로 확정하고 1,2부의 행사를 마치고, 이어진 3부 행사에서는 종회기 인수인계에 이어 신임회장 명패전달과 이임회장의 공로패 및 사은품이 전달되었으며 감사의 위촉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이어 이임하는 在男회장의 이임사와 신임 榮秀(泰 恒) 회장의 취임사를 마치고 외빈 및 회장단의 사진촬영을 끝으로 정갈한 음식으로 오찬을 나누고 파종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총회를 마쳤다.

- 대총회 부총장 태철 -

‘포충사지’기초조사 자료 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종료



2022년 6월 10일(금) 13:00~18:00까지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포충사 전현일(全鉉一)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충무공 김응하(金應河)장군을 기리는 포충

사(褒忠祠)와 묘정비(廟庭碑)를 본래의 자리로 이전하기 위한 포충사지(褒忠祠址) 기초조사 자료 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 했다.



철원군이 주최하고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연구원의 홍주희 실장이 진행을 맡고, 명지대학교 사학과 한명기교수의 약 1시간에 걸친 기초강연이 있었으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총 다섯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오전 8시 30분 지하철 도곡역에서 충렬공기념사업회 영환(榮煥)회장, 안동김씨대총회 재영(在永) 고문, 안사연 윤만(潤萬) 회장, 안사연 발용(勃鏞) 사진담당, 대총회 태영(泰榮) 사무총장 등 5명이 영환회장 승용차에 동승하여 포충사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20분이다.

전현일 원장과 규훈 사무국장의 안내로 포충사를 둘러본 후, 학술세미나 시작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옛 ‘노동당 당사를 다녀왔다.

철원읍내 부성식당에서 규세(圭世) 전 철원향교 전교, 태형(泰亨) 대총회 이사, 규훈(圭勳) 포충사 사무국장 등과 만나 부사공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내의 학술세미나장으로 이동하여 안내 데스크에서 학술지 1권씩을 받아 들고 입장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충사지의 문화재적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심하 전적지 중심공간의 위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충무공 김응하장군의 역사적·문화적 공간이 잘 정립되고 복원 되기를 기대하면서 거리 관계상 조금 먼저 빠져나와 귀경길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조선시대 한양에서 함경도 경흥에 이르는 경흥

길에 속한 금수정(金水亭) 둘레길을 돌아보며 경기옛길 스탬프북에 인증하고 귀가했다.

- 제1주제 - 광해군의 실리외교와 심하전역의 종합적 재해석
 - 발표 : 현강역사문화연구소 이우형 소장
 - 토론 :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신춘호 대표
- 제2주제 - 1619년 3월 봄날의 슬픈 및 장면
 - 발표 : 이승수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일환 동국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조선 후기 김응하에 대한 인식과 현장사업 전개
 - 발표 : 장정수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 : 허태용 충북대학교 교수
- 제4주제 - 철원 포충사지 문화재조사 성과와 차후 조사방향
 - 발표 : 황정욱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팀장
 - 토론 : 박준범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제5주제 - 철원 포충사의 건축적 특성과 복원·활용방안
 - 발표 : 이혜원 이음건축사무소 이사
 - 토론 : 최영철 경동대학교 교수

충무공 김응하(金應河) 장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포충사(褒忠祠)는 1665년(현종 6) 강원도 철원부 화전리에 세워진 사우(祠宇) [사액 1668년]이다. 1683년 사우 앞에 묘정비(廟庭碑)가 세워졌는데,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박태유(朴泰維)가 글씨를 썼으며, 김수항(金壽恒)이 전액을 썼다. 1799년 정조가 자필로 쓴 어시(御詩)를 내려 현판을 걸었는데...

남아성명문사(男兒聲名聞四夷) 남아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니
 요동화고해동자(遼東華詰海東姿) 요동백 추증 중국 고명은 조선의 자랑이네
 심하노유여인립(深河老柳如人立) 심하의 늙은 버들이 사람처럼 서 있나니
 여시장군의김시(如是將軍倚劍時) 이는 장군이 칼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일레라

광복 후와 6·25전쟁 때에는 향교가 유치원으로 쓰였으므로 포충사에 향교에 모셨던 선현의 위패를 옮겨 놓았으나 6·25전쟁 때 모두 불탔다.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비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있던 것을 3군사령부 안으로 옮겼다가 1984년 4월 3일 현 포충사로 이전하였다. 8·15 광복 전에는 포충사에서 제례를 지낼 때 상당히 거대하였는데 전야제 때는 남자들이 싸리나무를 묶어 만든 횃불을 밝혀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를 거화대령(炬火待令)이라 하였다. 포충사는 1990년 현재 위치로 옮겨 지었다.

‘계례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 거행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기념사업회, 보훈처, 독립유공단체, 광복회원, 문

중,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양모 기념사업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장호권 광복회 회장 순으로 추모사가 이어졌으며, 기념관에 올려퍼지는 숙명여대 합창단의 구슬픈 추도가 속에서 내빈 외빈, 문중, 유족 등의 순서로 헌화가 이어졌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싸웠으며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선생 등과 함께 구국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독립지사들의 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조국을 구하고자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바쳐왔다. 백범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마침내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했지만, 1949년 6월 26일 개인 사저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



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73년 전 흉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걱정하신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우리 국민이 백범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중에서는 (제)태헌 문영공회장과 (익)영수 파종회장이 대표로 헌화했으며, (문)영환 충렬공기념사업회 회장, (익)재영 대종회고문, (대)태권 파종회장, 성무 (제)석웅, (익)재영·태용·근식·연식·태연·형식·광수·진수·종식·인식 종친 등이 참석했고, 대종회에서는 (군)태영 사무총장, (익)태철 부총장이 참석했으며, 또한 김형동국회의원과 광주백범기념관 박미희 사무국장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관심사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백범 김구선생 73주기를 추모하며...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 - 보물 제2141호



복제본 : 경기도박물관 (원본 독립기념관)

「김구(金九) 서명문(署名文) 태극기(太極旗)」는 1941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金九, 1876~1949) 주석이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를 적어 친분이 있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梅雨絲, 본명 샤를 미우스 Charles Meeus)에게 준 것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매우사

신부는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의 부인 이해련(李惠鍊) 여사에게 이 태극기를 전했고, 후손들이 보관하다가 ‘안창호 유품’ 중 하나로 1985년 3월 11일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

1941년 경 매우사 신부는 선교사로서 중국 충칭[中慶]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위해 미국으로 가기 전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이 태극기에 글을 써서 주며 미국에 가서 우리 동포를 만나면 이 글을 보여 주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김구(金九) 서명문(署名文) 태극기(太極旗)’의 전래에 얽힌 일화는 미주 한인들이 발간한 신문인 『신한민보』 1942년 3월 19일자(3면)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세로 44.3cm, 가로 62cm 아담한 크기의 비단 천에 청색과 홍색 천으로 태극을 만들어 붙이고, 흑색 천으로 4괘를 덧대어 제작한 태극기이다. 깃대는 오른쪽에 천을 덧대어 만들었으며, 괘는 가로 상단에 건괘(乾卦)와

감괘(坎卦), 하단에 이괘(離卦)와 곤괘(坤卦)가 배치되어 있다.

깃대와 괘의 사이에는 김구(金九) 선생 친필로 묵서 4줄 143자가 쓰여 있고 마지막에 ‘김구(金九)’라고 새겨진 작고 네모난 인장이 찍혀 있다.

“梅雨絲 神父에게 付託하오. 당신은 우리의 光復 운동을 誠心으로 돕는 터이니 이번 行次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 韓人을 만나는 대로 以下 義句의 말을 전하여 주시오. 止國의 설움을 免하려거든, 自由와 幸福을 누리려거든 精力·人力·物力을 光復軍에게 바쳐서 强弩未勢인 日本을 打倒하고 祖國의 獨立을 完成하자.”
1941年 3月 16日 重慶에서 金九 贈呈

이 태극기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김구(金九)와 안창호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한국인들의 광복에 대한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서명문에서 김구(金九)는 망국의 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광복군을 도와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김구(金九) 서명문(署名文) 태극기(太極旗)’는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20세기 초 제작 태극기 중 정확한 제작시기가 알려진 유일한 자료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열망한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신념이 대표적으로 담겨 있다. 1942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극기의 제작규정을 통일하기 직전에 제작되어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 직금해치흉배 출토...경기도박물관 기증받아

안동김씨 익원공파 문정공 종중서 출토된 복식 40여 점
16세기 사대부家 여성 복식 알려주는 귀한 사례
경기도박물관, 보존처리 및 학술조사 거쳐 공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김기섭)은 지난 5일 포천시 내촌면 안동김씨 익원공파 문정공 종중 묘역에서 조선 전기 사대부 가문의 여성 복식 40여 점을 수습하고 기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복식이 출토된 곳은 새로 건설하는 도로 부지에 편입된 묘소 중 16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곳이다.

보통 묘소의 주인은 무덤 앞의 묘비와 묘소 주변에 함께 묻는 묘지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이곳은 묘비와 묘지명이 발견되지 않아 묘소의 주인을 가리기 어려웠다.

다만, 출토유물 중 명정(銘旌)에서 '밀양박씨(密陽朴氏)'라는 글씨가 확인돼, 안동김씨 족보를 통해 김귀(金龜)의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정·종 2품 문무관의 부인에게 주던 작호) 밀양박씨로 추정됐다.

안동김씨 익원공파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사대부 가문이며, 김귀는 조선의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진 익원공(翼元公) 김사형(金士衡, 1341~1407)의 7대손으로 1543년 무과에 급제하고, 상원군수(祥原郡守)을 지낸 인물이다.

김귀의 부인 밀양박씨는 생몰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수습된 복식에서 저고리의 넉넉한 품과 깃의 형태, 소매가 짧은 여성 예복인 단령형 원삼 등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 사대부 가문 여성 복식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한 16세기 중엽의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과 고려대박물관 소장 파평윤씨(?~1566) 묘 출토복식과도 유사성이 높다.

수습된 40여 점의 복식 중에는 직금해치흉배가 있는 소매가 짧은 단령형(團領形) 원삼과 더불어 나비, 벌, 연꽃무늬가 화려한 단령형 원삼이 1점 더 있는데, 직물조직이 성글어 하절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예복용 원삼 2점이 한꺼번에 출토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이다.

이외에도 직금단저고리, 접음단치마, 여성용 쓰개인 너울 등 다양한 복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전의 16세기 중엽 사대부 가문 여성의 복식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목선이 둥근 형태인 단령형 원삼의 직금해치흉배는 직금 특성 상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지만 깃, 꼬리, 발톱 등 해치로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어, 조선전기 복식유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귀중한 사례이다.

흉배는 조선시대 문무관리의 관복에 장식하여 상하의 계급을 뚜렷하게 나타내던 표식으로 1454(단종 2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문관은 공작, 운학, 백학 등 날짐승을, 무관은 호표, 사자, 해치 등의

길짐승 무늬를 넣어 품계를 구분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해치흉배는 조경(趙敬, 1541~1609) 묘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번에 수습된 것은 이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남성의 관복이 아닌 여성의 예복에 사용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원삼과 함께 출토된 너울. (사진:경기도박물관 제공)

원삼과 함께 출토된 너울은 조선시대 여성의 쓰개류의 일종으로 얇은 천이 너울거리는 물결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조선 초기에는 궁중과 양반계급 여성들이 말을 타고 외출할 때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출토된 너울은 모두 5점에 불과해 희소성이 높은 귀한 유물이다.

경기도박물관은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의 경우, 매장되었던 환경과 크게 다른 환경에 노출될 경우 부패가 급격히 진행되므로 복식 유물을 수습한 후 긴급히 보존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학술조사를 거쳐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양박씨 명정	장옷
직금해치흉배	직금 단령형 원삼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중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김방경 金方慶 항쟁과 굴종 사이를 오간 고려의 버팀목



▲ 김방경 金方慶(출생1212년 ~ 사망1300년)

《목차》

1. 몽골에 맞선 처절한 투쟁
2. 삼별초 토벌에 나서다
3. 내 몸도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었다

1. 몽골에 맞선 처절한 투쟁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은 고난의 시대에 살면서 그 주역의 한 사람으로 항쟁과 굴욕을 함께 맞본 역사의 증인이다. 그는 처절한 대몽 항쟁을 겪으면서 우리 겨레가 쓰러지는 참담함을 보았고, 끈질긴 항쟁도 끝내 좌절되자 타협의 길을 걸어야 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대가 인물을 삼키기도 한다. 그는 어느 쪽일까?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태종)는 아버지가 채 아우르지 못한 금나라 정복전쟁에 나서면서 이참에 후방의 고려도 함께 정복하려고 했다.

1231년 살레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학살과 약탈을 저질러댔다. 각지에서 고려군은 피나는 항전을 벌였으나 무신정권의 실력자 최우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강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몽골군은 이때 8000여 명의 병력으로는 고려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식상의 예물을 받고 황급히 철퇴했다. 이어 고려의 왕족과 벼슬아치를 볼모로 보낼 것과 물품의 공납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종의 감독관이라 할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보내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이에 고려에서는 외교적 관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항전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30여 년 동안 대몽 항쟁이 벌어졌고, 몽골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강화도에서는 건축공사를 크게 벌여 궁궐과 관청을 새로 지었다. 섬 둘레에 방어성도 굳건히 쌓았고 갑곶진, 광성보, 덕진 등의 보루도 완성했다. 결코 임시수도의 면모가 아니었다. 그리고 1000여 척의 전함과 수만 명의 군사를 집결시켰다.

몽골은 고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1232년 다시 침략하여 강화도에서 나올 것과 고려 왕 고종의 입조(入朝, 원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는 것)를 강요했다. 이때도 고려에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일단 물러갔다. 몽골은 곧 이어 금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만주 땅을 차지했으나 고려와 남송(南宋)만 굴복하지 않자, 다시 1235년 고려를 침략하여 4년 동안 분탕질을 쳤다.

김방경의 아버지는 병부상서를 지낸 김효인(金孝印)이다. 그는 아버지의 덕으로 차가타이가 황제에 오르던 1227년 산원(散員, 정8품의 낮은 무관)이

되어 벼슬길에 나왔고 이어 감찰어사로 창고를 감독했다. 이때 그가 재상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그 재상이 어느 권신에게 고자질을 했고, 권신이 나서서 김방경을 꾸짖었다.

“지금 어사가 옛 벼슬아치의 봉직만 못한 것 같소.”

김방경이 그에 맞서 강직함을 굽히지 않았다.

“나도 옛 어사와 같이 할 수 있으나, 나는 오로지 나라의 재정을 비축할 뿐 못사람의 입을 맞추어 줄 수 없습니다.”

1248년 몽골군이 침략하여 성을 공략할 때, 그는 서북면 병마판관으로 위도(葦島, 정주군에 있음)에 들어가 방어하고 있었다. 그는 섬에 제방을 쌓아 농사를 짓게 해서 식량을 자급했다. 또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 육지로 나갔다가 몽골군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해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아 식수를 해결했다.

그는 강화도에 들어가지 않고 최전선에서 몽골군과 싸웠다. 끊어오르는 적개심과 백성의 고통을 함께 푸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고 있었다. 더욱이 몽골군은 가을에 침략을 감행해 와서 곡식을 약탈했기에 민생은 더욱 가련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 굶어죽은 시체가 논밭에 질펀하게 널려 있었다. 이런 광경이 그의 의식세계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2. 삼별초 토벌에 나서다

1258년에는 김인준 등이 정변을 일으켜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졌으나 새로운 무신 김인준 일파와 임금 사이에 권력다툼이 치열해졌다. 이 틈을 타서 몽골은 마지막 침략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고려 태자를 몽골에 보내는 조건을 제시하고 철수했다. 몽골은 30여 년 동안 끝내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태자의 입조(立朝, 벼슬에 오름)만 성사시켰고, 태자(뒤의 원종)가 연경에 들어가 새 황제 쿠빌라이를 만나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고려의 태자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는 당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그 나라 태자가 찾아왔으니 하늘이 시킨 일이다.” 쿠빌라이는 마침내 고려의 영역과 왕권을 인정했다. 태자는 곧 돌아와 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때 새 왕인 원종(元宗)과 김방경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원종이 왕권의 보호를 원나라의 힘에 의지하려 하자, 김인준 일파가 이를 간파하고 왕을 제거하려고 했다. 원종은 이제 왕의 신분으로 연경 방문길에 나섰고, 몽골 조정은 실권을 쥐고 있는 김인준을 몽골에 내조(來朝)하라고 강요했다. 이때 무신 임연(林衍)이 김인준을 죽여 새로 실권을 잡았고 친몽의 태도를 보이는 원종을 갈아 치우고 새 왕을 추대했다. 몽골에서 돌아오던 태자(뒤의 충렬왕)가 이 소식을 듣고 몽골 조정에 구원을 요청하여 원종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 원종은 다시 몽골에 가서 무신들을 없애고 수도를 개성으로 옮길 것이니 군대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고려 왕실은 점점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었다. 끝내 원종이 임씨 무신정권을 타도하고 왕권을 제대로 잡으니, 이로써 무신정권은 100여 년 만에 끝장을 보게 되었다.

김방경은 무신이면서도 절대 무신정권에 가담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는 1265년 대장군의 직함을 지니고 몽골에 사신으로 갔고 북계병마사로 재직하면서는 몽골 수중에 있는 북계의 40여 성을 회복했다. 1269년 몽골군이 원종을 지원하러 왔을 때, 몽골군의 장수 몽가독이 서경을 지키면서 사냥 따위를 핑계대며 대동강 이남으로 넘어오려 했다. 그는 몽가독과 함께 있으면서 미리 황제의 허락을 받아 두었다고 질책하면서 대동강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김방경은 민폐를 염려하여 미리 쿠빌라이의 다짐을 받아 둔 것이다.

고려 왕실과 문신들이 무신정권을 타도하고 개성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자, 삼별초는 철저히 항전을 다짐하며 반기를 들었다. 농민과 노비로 이루어진 직업군인인 삼별초는 무신정권 타도에 나섰고, 지도자 배중손(裵仲孫)과 김통정(金通精) 등은 진도와 제주도로 진출하여 3년간 끝까지 대몽 항쟁을 펼쳤다.

김방경은 역적추토사(逆賊追討使)로서 삼별초 토벌의 고려 쪽 책임자로 나섰다. 이 어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정벌에도 한 번은 도독사(都督使), 한 번은 도원수(都元帥)로 고려군사를 지휘했다. 그는 고려 왕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벌전쟁에 끌려 나간 것이다. 이때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여러 차례 큰 시련을 겪었는데, 진도의 삼별초를 공격할 때 삼별초와 내통하고 있다는 밀고를 당했다. 개성으로 끌려와 문초를 받고 혐의가 풀렸는데, 몽골군의 장수 아해(阿海)와 알력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가 원나라(1271년 국호를 원으로 고침, 이하 원으로 호칭)의 성절사로 다녀왔을 때 “김방경이 400여 명과 함께 강화도로 들어가 다시 항쟁반란을 계속했다”는 혐의를 입어 다루가치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다음 해에도 다시 “김방경 부자가 400여 명과 함께 왕과 다루가치를 죽이고 강화도를 점거하여 항쟁을 벌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왕과 다루가치 앞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대청도(大靑島)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3. 내 몸도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듯 그는 끊임없이 원나라의 장수들에게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굴욕을 참고 원나라 사신으로 가서 고려의 실정을 호소하여 양곡 공급을 줄이고 원군이 차지한 둔전(屯田, 군대 양곡을 공급하는 농토)의 이전을 요구하여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는 1283년(충렬왕 9) 70세가 넘는 나이로 퇴직하여 한가한 노년을 보내다가 89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그런데 그의 공적과는 달리 쓸쓸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다. 그에 대해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방경은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으며 그릇이 커서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았다. 평생 동안 임금의 득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비록 벼슬자리에 물러나 한가히 있을 적에도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일과 같이 했고 큰 논의가 있으면 임금이 반드시 자문했다. 《고려사, 열전》



▲김방경의 묘 -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그는 무신이면서 무신정권에 가담하지 않았고, 철저히 대몽 항전을 벌였다가 뒤에는 삼별초 토벌에 동원되었다. 고려왕실을 위해 몽골에 외교 솜씨를 보였으며 강요에 따라 일본 정벌에도 나섰다. 그는 심한 갈등을 겪으며 몽골의 장수들과 계속 알력을 빚어 여러 번 문초를 당했다. 그런 와중에도 늘 민생문제와 국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신명을 바쳤다. 그는 항몽(抗蒙)과 부몽(附蒙) 사이에서 번민과 눈물을 가슴속에 묻어 두고 고려를 지키려고 인간힘을 썼다. 그는 비겁하거나 눈치를 살피는 타협주의자가 아닌 고려의 버팀목이었다. 뒷날 병자호란 때의 최명길의 행동과 아주 그럴싸하게 비교된다. 그런데 박정희시대에는 삼별초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를 몽골에 타협한 인물로 그렸다. 군사독재 세력이 삼별초의 자주 이미지를 조작하면서 그를 희생물로 만든 것이다.

■이이화 집필자 소개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와 서울대 규장각 등에서 우리 고전을 번역하고 편찬하는 일을 했으며, 서원대, 성심여대 등에서 역사학을 강의했다.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역사잡지 <역사비평>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도 맡았다. <허균의 생각>, <한국의 파벌>,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등의 저서가 있다.

상서공(휘 효인) 삼일포시 발문

◎見十五代祖尙書公詩.感而題 - 柏谷(金得臣)先祖文集 冊六 / [雜著] 詠高城三日浦上冊書. <平聲 歌韻>

刻碑鐫碣古猶多 예부터 여전히 많이 하듯 비갈에 새겼는데
 蘇食塵侵字轉訛 이끼 끼고 티끌에 깎여 글자 계속 잘못 되어갔네
 爭似指頭千載血 어찌 손끝으로 흘린 천년된 피처럼
 一淪山石不銷磨 한번 산돌에 스며들어 닳아 없어지지 않았네.

此詩.十五代祖麗朝兵部尙書諱孝印所詠也.素聞工文章.後裔不能知一首詩一篇文.年代甚遠而然耳.且以爲殘膏賸馥.或在陳篇.而無絲目擊.族弟金夏圭亦外裔.昨日自龍湖徠誦此詩.仍寫以眎之曰何如.余伏而讀之曰.弗啻脍理貫通.文字亦且奇崛.非文章而能如是乎.金夏圭曰.此非金孝印之詩乎.余驚曰.十五代祖金孝印能文章.而不睹其作.今乃因于創見先世之佳什.愜吾平生所願.未知得之簡編中歟.聞之人之傳誦歟.曰.書之族譜冊.故知之矣.余寶之惜之.詠之不輟.亦可以傳之無窮.謹跋.

이 시는 15대조 고려 병부상서 諱 효인(孝印)께서 읊은 것이다. 평소 문장에 솜씨가 있다고 들어왔지만, 후손들이 시 한 수, 문장 한 편도 알 수 없었다. 연대가 너무 멀어 그랬을 뿐이다. 더구나 후세에 남은 옛 사람의 유품과 여향(餘香)에 혹시 묵은 글이라도 있을까 여겼으나 목격되는 가요가 없었다.

족제(族弟) 김하규(金夏圭)는 다만 외손인데, 어제 용호(龍湖: 용산)에서 오더니 이 시를 외웠다. 거듭 써서 보여주며 어떠냐고 말했다. 나는 굽어 읽어 보고는 말하기를, “다만 남긴 이치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독특하다. 문장(文章: 재능과 학문)이 아니면, 이와 같이 하지 못하지.” 하니, 김하규가 말하기를, “이것은 김효인(金孝印)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놀라 말하기를, “15대조 김효인은 문장에 능하였는데, 그분의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바로 독창적인 견해를 통해서 보니 선세(先世)

의 훌륭한 시편이구나. 내 평생소원을 풀어 흡족하네. 서적 중에서 얻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전하며 읊는데서 들은 것인가 모르겠구나.” 하니, 대답하기를, “족보 책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보물로 여기며 소중히 여겼다. 읊기를 그만두지 않고, 또한 무궁토록 전해야 옳겠다. 삼가 발문을 적는다.

◎三日浦 - 柏谷(金得臣)詩 <平聲 元韻>

四仙何日遇 네 화랑들 어느 때 만났기에
 六字尙能存 여섯 글자 아직도 남아 있는 걸까
 淸玩曾先祖 일찍이 선조께서 칭아한 글 남겨
 奇遊又此孫 또 이 자손 빼어난 유람하네
 丹輝留石面 붉은 글씨 찬란히 돌 표면에 남아있고
 碧色雜苔痕 푸른빛으로 이끼의 흔적 얼룩졌네
 今日還歸後 오늘 돌아간 뒤에도
 應勞我夢魂 내 꿈속에서 혼에 호응하여 위로되겠거니.

번역 -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김득신(金得臣, 1604~1684)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시인이다.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栢谷)·귀석산인(龜石山人)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임진왜란 때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은 그의 할아버지이다.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김치(金緻)이며, 어머니는 사천 목씨(泗川睦氏)이다. 음보(蔭補)로 참봉(參奉)이 되고, 1662년(현종 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안풍군(安豐君)으로 습봉(襲封)되었다. 후에 화적(火賊)에게 살해되었으며, 당시 시명(詩名)이 있었다. 저서에 《백곡집(栢谷集)》 《종남총지(終南叢志)》 등이 있다.

군사공파 평택종중 선영 사초작업

쾌적하고 편안한 유택 조성, 조상에 대한 깊은 공경과 문중 발전을 도모하다.

2022년 4월 8일(금), 평택 사리(절골) 선영에서 안동김씨 군사공파 자산공종회(회장 경희)는 각지의 후손들이 모인 가운데 잡초속에 훼손되어 가는 선조님들의 묘역 정화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세워 대형 업체인 하북석재에 위탁, 7일간에 걸친 사초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상님들께 놀라지 마시라는 의식인 파묘제(破墓祭)와 토지신에게 선영을 편안하게 보호해 달라는 산신제(山神祭)를 올린 후, 묘역 주변의 간벌작업에 들어갔으며 다음날부터 하북석재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입향조이신 증 군사감정공(휘 珍) 할아버지와 숙부인 해주오씨 할머니 봉분을 비롯하여 5기의 봉분을 차례로 해체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새롭게 안치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관곽을 덮은 석회석을 해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다. 매장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하면서 살폈지만 오랜 세월 모두 삭아 흔적만 간신이 수습하고 관곽은 옆에 다시 매설하였다.

묘역은 모두 7단으로 조성하여 상단에는 현재 파주 문산 선유리에 모셔져 있는 자산부사(휘 允精)와 배위 숙부인 전주이씨, 그 아드님 통덕랑공(휘 訥)과 공인 밀양박씨 묘의 이장을 대비하여 터를 조성해 놓고, 5단에는 동추공(휘 彦禎)과 정부인 풍양조씨 단묘, 4단에는 증군자감정공(휘 珍)과 숙부인 해주오씨 묘, 3단에는 참의공(휘 繼先)과 숙부인 신평이씨 묘, 2단에는 첨추공(휘 格)과 숙부인 창원공씨 묘, 1단에는 동추공(휘 鳳儀)과 정부인 칠원윤씨 묘를 차례로 봉토와 잔디식재를 마치고, 4월 17일(일)에 성분제(成墳祭)를 올렸다.

정화사업에는 김경희 회장을 비롯한 총무 구회·유사 완회·후손 각회·승용·한묵 등이 수고해 주셨고, 성분제에는 사초에 참여한 집행부와 원로 홍묵 종친을 비롯한 상회·용남·범회·두회·경묵·태근·신희·태봉·형석·중회·태길 등 후손들과 7분의 며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안동김씨 군사공파 후예(後裔)들의 집성촌인 평택 서탄 사리[진위현의 서쪽]의 입향조는 자산부사 휘 윤정(允精)의 증손인 증군자감정공 휘 진(珍, 1572~1619)께서 임진왜란 때, 진사 오희운(吳稀允)의 따님 해주오씨에게 장가들어 처가인 진위현에 정착하면서 430여년을 안동김씨 집성촌으로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강진으로 파주로 평택(진위)으로 터전을 이어 오면서 당당했던 집성촌의 예전풍속과 자취는 격변하는 세월 속에 점차 사라져가고 묘하의 연로하신 종인들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공 종중 후손은 전국 각지에 약 200여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묵(元默, 1882~1961), 호 백농(伯農)은 대동종약소 창립위원과 1935년 화수록 편찬위원으로 종사에 참여하셨고, 재윤(在潤, 1906~1984)은 대종회 이사, 경기도위원을 지내셨습니다. 태영 사무총장의 조부와 증조부가 되십니다. 이 마을 출신으로 각계에서 활동중이신 분들을 생년순으로 기록했는데 누락된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철(在哲, 1931生) 자 낙용(洛鏞), 호 청송(靑松), 공직 정년퇴임, 의료보험조합장, 평택시 노인회장
- 효균(孝均, 1953生) 在行, 태조건설(주) 대표이사
- 태영(泰榮, 1953生) 호 만오(晩悟), 총령공기념사업회·대종회 사무총장
- 재중(在鍾, 1955生) 옥천군수
- 춘회(春會, 1956生) 행정학박사, 장안대 교수
- 성회(星會, 1963生) 기업인 인도네시아
- 상회(相會, 1963生) 진위면장
- 태호(泰昊, 1964生) 고등학교 교장
- 중회(重會, 1967生) 건축시공기술사
- 근회(瑾會, 1970生) 연세대 공학박사
- 민회(珉會, 1971生) 영문학박사, 부사외국어대 교수
- 종묵(宗默, 1971生) 보명 상묵(尙默), 3군단 참모장(준장)
- 태선(泰善, 1972生) 내과의사

안동 중시조 상락공 방경(方慶) - 강진 판서공 선(愼) - 대제학 총수공 승용(承用) - 평리공 상락군 후(厚) - 군사공파조 칠양(七陽) - 파주 직제학공 진(墳) - 토산공 삼로(三老) - 부사공 곤(坤) - 자산공 윤정(允精) - 통덕랑공 지(訥) - 평택 동추공 언정(彦禎) - 입향조 증군자감정공 진(珍) - 참의공 계선(繼先) - 첨추공 격(格) - 동추공 봉의(鳳儀) ※밑줄 부분 묘소 사초



▲묘역 정화사업 완료후



▲성분제 모습



인천중친회 임원회의 개최

2022년 5월 20일(금) 오전 11시 인천대공원 야외에서 인천중친회 고문, 회장, 명예회장, 이사, 감사, 총무 등 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에는 백범 김구선생의 동상과 그 옆에는 모친 광낙원여

사의 동상이 있는 곳이어서 이날 회의 앞서 동상 앞에서 참배를 드리고 (군)성목회장의 개회사와 (익)기성.在, (전)춘교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총무는 그간의 종사업무를 보고하였다. 안건으로는 청와대 단체관람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오래만에 이뤄진 모임이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도록 그간의 못 다룬 회포를 풀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가까운 돼지갈비집으로 이동하여 춘교명예회장이 제공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가 하였다.

- 인천중친회명예회장 김춘교 -

안동김씨(典)화성 정남종친회 임원수련회 개최



화성 정남종친회(회장 관교)는 오랜만에 1박2일간 임원 야외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오산역 부근에서 집결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공주 마곡사를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관교회장의 개회사와 춘교수석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경(교자항렬)사무차장의 사회로 수련회 일정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관교회장의 그동안 종사 업무추진 결과보고에 이어 안동김씨 계통도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마곡사 부근의 숙소에 도착하였다. 휴식을 취한 뒤 저녁 무렵에는 편을 나누어 족구경기로 친목을 도모하며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그 다음날 2일차에는 마곡사 경내를 둘러보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교통체증을 가만하여 서둘러 오산으로 향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알찬 수련회가 되도록 다짐하며, 1박2일 동안 임원 간에 소통과 화합이 증진됨을 서로 확인하고, 저녁식사 후 귀가 길에 올랐다.

-화성정남종친회 사무차장 대경.[교자항렬]-

안동김씨 논산종친회 제33차 정기총회 성료



▲식사후 기념촬영

2022년 5월 14일(토) 오전 11시 충남 논산시 취암동 고구려 식당에서 김재희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종친회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재희 회장의 총회 인사말씀에 이어서 김재승 총무의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재무를 담당했던 김윤한 종친 후임으로 김대회 종친을 선임하였다.

그동안 재무를 맡았던 김윤한 종친의 이임 인사말에 이어서 신임 김대회 재무의 수락 인사가 있었고 끝으로 김재승 총무의 인사를 끝으로 참석 종친 모두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종친간 친목을 도모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총무 김재승 -

보령시, 제430주기 임란공신 추모대제 봉행



▲제430주기 임란공신 추모대제 봉행

행사는 국민의례와 추모사, 제례 봉행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헌관은 이예안 경주 이씨 백사공파회장, 아헌관은 김창호 원주 김씨 대총회장, 종헌관은 김동목 성균관 전례위원장이었다.



송재훈 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은 “임진년 누란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신을 바치신 공신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구국공신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안동김씨는 원주 영월산성에서 순직하신 문숙공 김제갑(金梯甲),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金時敏), 탄금대에서 순절하신 충민공 김흠(金欽) 선조님 등 세분이 배향되었으며 이날 충민공 후손인 전첨공종회 회장 재택(在澤) 부부가 참배하였다.

- 충민공종친회 총무 김태인 -

충남 보령시는 임진왜란 발발 제430주년을 맞아 13일 성주면 성주산로 367-1. 호국사 경내에서 임란공신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임란공신충의선양회(회장 송재훈)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선양회와 후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위기 시 피땀을 흘리며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선조들의 살신성인 유덕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추모했다.

충렬공기념사업회 김영환 회장 고문서 기증

- 대중회 고문서 지속적 수집 -



정재 박의중, 일재 권한공, 한수 유허선생 문집 등과 안동김씨의 선조님 관련 문집으로는 송은 김광수, 후송재 김사정, 천사 김종덕, 낙애 김몽린, 우암 김주, 구암 김충갑, 하담 김시양, 삼소재 김종락등이며, 경서로는 시해, 맹해, 주해 그리고 족보류, 백범일지, 풍도 등 다양한 종류의 소중한 고서들이다.

(문)김영환 충렬공기념사업회 회장은 2022년 6월 26일 개인적으로 소장해 오던 각종 고서 72점을 '안동김씨문고'소장용으로 대중회에 기증한데 이어, 2차로 7월7일 또 49점을 기증했다. 2차례에 걸쳐 기증된 고서는 족보·문집·사서 등 모두 121점으로 고려시대 둔촌 이집, 도은 이송인, 담함 백문보, 익재 이제현, 제정 이달충,

안동김씨 고문서는 지속적으로 대중회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고문서를 기증하실 종친들께서는 대중회로 연락주시면 안전하게 수집해서 기증한 종친의 뜻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보존처리 및 학술용역을 거쳐 기증문서 발간을 검토할 예정이며, 학자들과도 공유하여 가문의 역사 발전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안정공파 김창규(국민의 힘) 종인이 제천시장에 당선되었다. 힘든 검증과정과 피말리는 선거를 통해서 제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김창규 시장은 부친 덕회(德會)의 2남 1여중 장남으로 제천에서 태어났다. 1958년생으로 보명은 태규(泰圭)이다.

제천고, 고려대 법대, 고려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제18회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영국·독일·러시아·벨라루스 등지에서 서기관, 참사관, 공사를 차례로 역임하고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과 주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지냈다. 육군중위로 군복무를 마친 김 시장은 부인 김환수씨 사이에서 형제를 두었다.

충렬공 방경-선-승택-묘-안정공 구덕-오문-중엄-뉴(쌍계재)-환-세신-상우-경중-준성-창-윤구-서봉-민경-태석-낙인-병이-재황-창호-해관-재영-덕회-창규(태규)



-안정공파중회장 김홍기-

콩별곡[豆別曲]

- 목화 김화자

성은콩씨	이름나물	생년월일	미상일세	온갖맛을	뽀내면서	식탁위에	일등공신
성장지는	웅기시루	물만먹고	홀췌꼴다	조조아들	조식이의	칠보시도	유명하지
천정부지	뛰는물가	너는어찌	변함없이	콩각지로	콩삼으니	가마솥에	콩이우네
노란머리	고개속여	주부들을	반기느냐	본래같은	부리에서	태어나서	어찌하여
너와같이	고상한몸	명절마다	초대받고	이렇게도	다급하게	삼아대나	칠보시로
흠모하는	조상제사	콩나물이	빠질소냐	형제우애	회복하고	조식이를	살렸다네
노란콩에	파란콩에	인절미에	입혀진웃	메주콩을	만들때면	너의조상	존경한다
고맙하고	우아하다	젓가락이	자꾸간다	콩각지로	콩을삼고	동글남작	만들어서
오색찬란	비빔밥도	너없으면	맛이없어	시형에다	주렁주렁	매달아서	말렸다가
과음주당	다음날에	숙취해소	콩나물국	숙성시켜	장담아서	간장된장	제공하네
북어국에	궁합맞고	해장국에	초청받네	콩씨들은	천세만세	인간에게	몸바쳐도
콩아니면	두부반찬	콩조림이	있을소냐	아껴주지	못할망정	때리거나	말것이지
너의분신	콩가루는	칼국수에	배필이요	콩추수를	한답시고	마당에다	늘혀놓고
콩이름도	다양하다	청태콩에	양대콩에	죄지은것	없는데도	모질게도	도리깨질
완두콩에	강낭콩에	메주콩에	올타리콩	숨어살던	콩형제들	웃음흘랑	벗기운채
콩씨들은	삼사형제	집한채에	방한칸을	웅기종기	모여앉아	소곤소곤	속삭인다
유산받아	형제간에	다름없이	성장할때	잘못한것	죄지은것	없는데도	왜때릴까
좁은공간	외출한번	못해보고	인간에게	일년삼백	육십오일	삼시세끼	밥상위에
의학연구	담백영양	보약연구	철저하게	자태롭게	올라앉아	입에맞게	대접해도
학자분들	연구발표	콩음식은	다 좋다네	고마운줄	소중한줄	아낄줄을	전혀몰라
청국장엔	당뇨병과	동맥경화	예방하고	간장된장	없었으면	백미밥도	무미건조
작고까만	쥐눈이콩	영양소가	풍부하여	각종야채	조리할때	나아니면	맛없는데
기억항상	높여주고	치매예방	도와주네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들은	의리없어
쥐눈이콩	추출물은	유방암을	억제하고	콩씨들의	장한희생	사람들이	미처몰라
콩식품은	항암효과	노화방지	으뜸이라	노란콩아	검정콩아	파란콩아	미안하다
섬유소가	풍부하여	다양요리	칭찬받고	목화라는	이야낙이	대변해서	칭찬하다
눈도발도	없는콩씨	동서팔방	찾아가서	영양식품	으뜸이라	콩식품을	애용하자
달달하게	볶은콩은	아이들의	간식되고	- 명절에 콩나물을 다듬으며 -			

로 충렬공할아버님 이하 안동김씨를 빛낸 선조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 다. 타 문중 사람이 우리 조상님께 좋지 않은 언사로 말을 하면 그들을 완전히 제압시키는 힘을 지녔으며 여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문중 일이라면 앞장서는 분이다. 목화 김화자 여사는 안동의 명문가인 의성김씨 학봉선생 집안으로 출가하여 현재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조상님 내방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가 및 수필가로 명성을 떨치며 우리나라 내방가사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많은 작품과 각종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고 문학예술 신인상과 동국대학교 미담문화제 작품선정과 대구 중구 생애사 열전 인물로 선정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높은 연세에도 사재를 들여서 우리나라 명문가의 각종 내방가사를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여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진섭, 화자, 종묵

목화(木花) 김화자(金花子) 여사는 익원공파 후손으로 1942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에서 출생하여 안동김씨대중회 여성 고문(顧問)으

- 김진섭 -

도덕(道德)이 허물어지면 나라가 허물어 진다.

대중회고문 동천 김창희



장마와 더위가 번갈아 찾아들며 열대야와 폭양이 이어져서 사람을 괴롭히는 가운데 절서는 어김없이 변하여 가을철의 첫 절기 입추가 지나고 8.15광복절은 더위의 마지막 고비 말복이다. 거연히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오동일엽락(梧桐一葉落)에 천하장지추(天下將知秋) 다시 말해서 오동잎 한 잎 지는 것을 보고 세상에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첫째는 천기(天氣)이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의 하층부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공기·산소·바람 따위가 그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짧은 순간에 질식사하여 죽을 것이다. 둘째는 지기(地氣)이다. 우리는 삼시로 대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곡식과 과일 생선과 육류 채소는 모두가 지기이다. 이는 천기처럼 금방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전폐하면 얼마가지 못해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과 독서를 통하여 받아드리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다.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코로 천기를 받고, 입으로 지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일반적 동물과 무엇이 다르랴 사람은 정신적 교양을 함양하여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의 학교요, 역사는 교과서요, 경험은 스승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평생을 배우다가 죽는다고 해서 죽은 뒤의 그를 표시하는 명정(銘旌)이나 제사지낼 때 신주나 지방에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는 것은 일평생 배우다가 죽는다는 뜻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배우는 자에게 배우는 자는 깊은 산골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배움을 그친 자에게 배우는 자는 웅덩이에 고여 있는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요즈음 우리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과 정신교육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영어·수학·과학 등의 교육은 지식교육 위주이다. 졸업 후의 취업이 주가 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윤리·역사·한문의 학과는 지식공부요, 마음공부요, 몸공부이며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공부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은 취업의 문이 좁기 때문에 이른바 배고픈 학문이다.

옛날 선비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역사회의 사표(師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선인들의 말씀 중에 양불교부지과(養不教父之過)요 교불엄사지타(教不嚴師之愆)라 하였다. “키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이요, 가르치기 만하고 엄하지 않는 것은 스승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요즘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은 지독지애(舐犢之愛)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 이것은 어미 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동분서주 하고 좌충우돌하는 각박한 세태에 태곳적의 천치 같은 얘기를 늘어놓

으니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기에 조심스러울뿐이다. 하지만 비록 실행은 못하더라도 한번쯤 씹어볼 내용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어느 사람은 교사(教師)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학생의 사랑을 받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존경을 받으며 매사에 모범이 되는 교사를 덕사(德師)라 칭하며 학생지도를 요령있게하고 수업에 열중하여 목소리나게 가르쳐서 성적을 잘 올리는 교사를 경사(經師)라 칭한다. 직업의식이 투철하여 시각의 분초를 가리고 득실의 계산이 밝으며 속을 짓 하지 않는 교사를 업사(業師)라 칭하며 상식 밖의 소행으로 학생의 장래를 그르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며 교육동료를 민망하게 하는 교사를 졸사(拙師)라 칭하였다.

사람은 정신이 죽는 것이 첫째 슬픔이요, 몸이 죽는 것은 다음이다. 나라는 역사가 죽는 것이 첫째 슬픔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음이라 하였다. 비록 몸이 죽더라도 정신이 살아 있으면 그 후손은 일어나서 가업과 전통을 이어가고 나라를 중흥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몸이 살아서 하루 세 그릇의 밥을 비우고 있지만 정신이 죽은 사람은 남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의 일상생활에는 물질적 자본이 있고, 정신적 자본이 있다. 물질적 자본은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경제생활이요, 정신적 자본은 전통·권위·자존심·지조를 살리는 것 등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를 바로잡고자 마음먹은 깨어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상을 한탄하고 정부를 나무라고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정치의 옳고 그름을 호언장담하고 윗사람을 원망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런 일들만으로 세상이 바로 서지는 않는다. 콩알이 귀를 막아도 천둥과 우레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가랑잎이 눈을 가려도 드넓은 세상을 볼 수가 없다. 닫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 이다. 사무 처리를 잘하고 언변이 능통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유능한 공직자이다. 그것보다는 설자리 앗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알고 가야 할 곳과 가지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며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분명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공직자가 더욱 훌륭한 공직자이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도덕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도덕의 위기는 군사적 위기보다 무섭고 경제적 위기보다 두렵다. 도덕이 허물어지면 사회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나라가 허물어진다. 부강한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강한 나라보다도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숨기는 것 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 없고 미미한 것보다 더 잘 밝혀지는 것은 없나니라 쓸 때 푸닥거리 그만하고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중 한 구절 적어본다.

世與我而相違 세상이 나와 서로 맞지 않으니
 復駕言兮焉求 다시 수레를 타고 무엇을 구하겠는가?
 悅親戚而情話 친척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樂琴書而消憂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근심을 잊으리라

주거/사무실/상업 공간 인테리어

A done Design

에이던 디자인

대표 / 실장 : 김 태 환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오피스 B동 1217호 (문정동, 힐스테이트에코송파)

TEL : 02-6956-3237
 FAX : 02-6956-3233
 E-mail : adone-design@naver.com
 www.adone-design.com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괄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열린손해사정법인

www.yeolrin.co.kr

손해사정사 김재민
 전)삼성화재 보상과 근무

우)08023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1 (세양빌딩 2F)
 Tel : 02-855-4973 (직통)FAX : 0504-252-8845
 M : 010-3362-8845 E-mail : j.min.kim@yeolrin.co.kr

교통사고시 소독, 과실, 장애, 향후치료비, 쟁점사항 등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산재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관계검토

교통사고시 고질이나 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장애보험금(지급율 3%~100% 또는 1급~6급)을 검토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서 발급방식이 McBride식, AMA식,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암·화재재해·교통사고·후유장애·국가유공자 국가장애인등록상담·산재사고

철원유림, 추자도 김방경장군 유적 탐방



가을추(秋)자가 아닌 개암나무 추(楸)자를 쓴다는 추자도(楸子島)는 옛부터 한반도와 제주도를 잇는 교통 및 군사 요충지이다. 우리가 찾아가는 김방경장군 유적 역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요충지였기에 머물렀던 것이다.

김방경 장군은 철원의 명장 김응하 장군의 증시조로 고려 원종 14년 (1273년) 삼별초 토벌을 위하여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로 진군 하였으며, 그로부터 700여년이 흐른 오늘 철원의 유림 13명이 이곳을 찾고 있으니 감개가 무량할 뿐이다.

김방경장군 유허지와 최영장군 사당은 거의 한군데라고 할 정도로 붙어있고 가는길 또한 면사무소 옆 골목을 지나 추자 초등학교를 지나니 바로 나타난다. 유허지임을 알리는 비에는 김방경장군의 행적과 100년뒤의 최영장군의 행적을 적어 놓았고 비 뒤편에는 “국사편찬위”고려사절요”, 김석익 “탐라기년“ 1918 이라고 두줄 적혀 있다. 생각 보다 자그마해서 선양사업을 조금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쪽 사람들에게 건의도 하고 조금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참배를 시작 한다.

초헌관 김규훈 24세손 철원향교 사무국장, 아헌관 김재경 24세손 철원향교 회원, 종헌관 김승립 철원향교 회원, 집례 임병순 철원향교 장의, 대축 및 알자 이주섭 철원향교 교화장의, 봉향·봉로 최창배, 이명규 철원향교 장의, 사진 박종민, 허은 철원향교 장의로 진행된 참배는 엄숙 하면서도 뜻있게 진행 되었다.

維 孔紀 2572年 歲次 辛丑 十月 丁巳朔 十三日 己巳
유 공기 2572년 세차 신축 시월 정사삭 십삼일 기사
鐵原鄉校 總務首席掌儀 金圭勳 敢昭告于
철원향교 총무수석장의 김규훈 감소고우
上洛郡開國公 諡忠烈公 伏以 邦分裂時 求國一念 昏亂平定
상락군개국공 시충렬공 복이 방분열시 구국일념 혼란평정
武功大振 子孫世傳 行跡欽慕 因此擇日 訪問參拜 不勝景慕
무공대진 자손세전 행적흠모 인차택일 방문참배 불승경모
謹茲 獻酌用伸 虔告 謹告
근자 헌작용신 건고근고

2021년 10월 13일 23세손 철원향교 총무수석장의 김규훈은 상락군개국공 시충렬중시조님께 엎드려 감히 고하나이다.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무공을 크게 떨쳐 혼란을 평정함으로써 이를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충렬공할아버님의 행적을 흠모해 오던 중에 날을 잡아서 방문하여 참배를 올리니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술을 올리고 경건히 고합니다. 참배를 마치고 나니 초등학교 쪽에서 올라오는 햇빛이 상서로워 장군이 왔다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단체 사진도 찍고 김방경 장군에 대하여 이주섭 교화장의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나니 모두들 뿌듯한 마음이다.

김방경(金方慶) 장군!

이곳의 유허비에는 두줄의 기록을 적어놓고 있지만 고려사나 고려사절요를 보면 장군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 추자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기록이 있는데 문화관광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록을 찾아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가지 기록을 발췌해 보았다.

癸卯 中軍行營兵馬元帥金方慶率精騎八百, 隨忻都等, 討三別抄于耽羅, 王授鉞遣之. 계묘일 중군행영병마원수 김방경(金方慶)이 정예 기병 800명을 인솔하여 혼도(忻都)등을 따라 탐라(耽羅)에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하러 가자 왕이 도끼(鉞)를 주어 파견하였다. 1273년 2월 20일(음) 계묘(癸卯), 1273년 3월 10일(양) ※발췌 : 고려사절요

이 기록으로 보아 장군 일행은 1273년 양력 3월 삼별초 토벌에 나섰고 왕이 도

끼를 하사하면서 격려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왕이 도끼를 하사한 것은 그 당시 조정의 결기가 대단하였음을 보이는 장면이라고 보는데 그 도끼는 집안이나 종중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본다.

그 도끼가 아직 있다면 문화재 이겠지만 모형이라도 만들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떻을까 생각도 해 본다.

庚戌 金方慶與忻都·茶丘等, 以全羅道一百六十艘·水陸兵一萬餘人至耽羅, 與賊戰, 殺獲甚衆, 賊衆大潰. 斬金元允等六人, 分處降者一千三百餘人于諸船, 其元住耽羅者, 按堵如故. 於是賊悉平, 使將軍宋甫演等, 留鎮而還. 경술 김방경(金方慶)이 혼도(忻都), 홍다구(洪茶丘)와 함께 전라도(全羅道)의 배 160척과 수군 및 육군 10,000여명을 지휘하여 탐라(耽羅)에 도착하였고, 적과 싸워서 죽이거나 노획한 자가 매우 많아서 적의 무리가 크게 궤멸되었다. 김원운(金元允) 등 6인을 참수하고 항복한 적군 1,300여 인을 여러 배에 나누어 태워서 육지로 옮겼으며, 원래 탐라에 거주하던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게 살도록 하였다. 이에 적이 완전히 평정되자 장군(將軍) 송부연(宋甫演) 등을 그대로 머물러 주둔하게 하고 귀환하였다. 1273년 4월 28일(음) 경술(庚戌), 1273년 5월 16일(양) ※발췌 : 고려사절요

이 기록으로 볼 때 삼별초 토벌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듯 하다.

1273년 3월 10일쯤 시작된 삼별초 토벌은 두 달여가 지난 5월 중순경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 조금 싱겁게 끝났지만 김방경 장군이 이끄는 토벌대가 그만큼 막강했으리라고 생각 된다. 더구나 전라도 지방의 배 160여척과 수군 10,000여명을 지원 받았으니 방어적 전투를 치루고 있던 삼별초는 제대로 힘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인다.

乙亥 金方慶遣其子綬及祗候金城, 別將俞甫等來告捷, 群臣賀平賊. 을해 김방경(金方慶)이 아들 김수(金綬)와 지후(祗候) 김감(金城), 별장(別將) 유보(俞甫) 등을 보내 승전을 보고하자, 여러 신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적의 평정을 하례하였다. 1273년 5월 24일(음) 을해(乙亥), 1273년 6월 10일(양) ※발췌 : 고려사절요

아무튼 삼별초 토벌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방경 장군은 왕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물론 원나라 황제까지 하사품을 내릴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함께 토벌대에 참여한 홍다구로 인하여 역적으로 몰리는 고초를 당하고 유배를 가게되는 고난을 겪게 된다. 이 기록은 삼별초를 토벌하고 1달여쯤 지난 후에 왕에게 보고한 기록이다. 아들과 측근을 직접 보내 왕을 알현하고 조정대신들에게 보낸 아들과 측근을 배려했음을 엿보이는 대목이다.

秋七月 乙未 侍中金方慶被召如元, 帝賜金鞍·綵服·金銀. 가을 7월 을미 시중(侍中) 김방경(金方慶)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원(元)으로 가니, 황제가 금으로 만든 말안장(金鞍)과 무늬 있는 의복(綵服), 금과 은을 하사하였다. 1273년 7월 16일(음) 을미(乙未), 1273년 8월 29일(양) ※발췌 : 고려사절요

이 기록은 원나라 황제가 김방경 장군을 직접 불러 말안장과 의복, 금, 은을 하사한 기록이다. 1273년 가을 김방경장군은 수행원을 데리고 원나라로 직접 가서 황제에게 상을 받았으니 그의 정치적 위치가 새삼 대단했을 것으로 추측 되고 있다. 금으로 만든 말안장이라니, 그 값어치를 생각하니 놀랍기만 하다. 이렇듯 김방경 장군에 대하여는 제주도와 추자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유허비 하나만 쓸쓸하게 서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김방경 장군의 흔적을 살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선양사업을 하기를 바래 본다. 주변을 정리 하는데 한줄기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다. 푸르른 창공을 보니 김방경 장군의 기운이 감도는 유허비 앞에서 시조 한수 읊어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 한수 지어본다.



김방경장군의 유허지에서 상락공 충렬장군 탐라국 자취따라 칠백년 흐른세월 철원유림 방문참배 흔적은 아니보이고 유허비만 허허롭네

2021년 12월 김응하장군 역사연구회원 임병순 추자도 김방경 장군 유허지를 참배하고 쓰다.

관동팔경 여행과 단모부

-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 관동지역 답사 -



▲靑庵 金詳浩(書)

1. 단모부 여행(旦暮賦旅行)을 시작하며

무위지도(無爲之道)는 仙人의 길이요, 격물치지(格物致知)는 聖人의 도이다. 이(理)는 치(治)에 이르고, 치(治)는 행(行)에 의하니, 행은 사(思)에 있고, 사는 탐(探)에 있다. 오래도록 축적된 시간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새로운 삶의 행로가 되리니, 역사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혈족의 역사 비조(鼻祖 金叔承)

는 1050여 년이요, 중시조(金方慶)는 800여 년이고, 파시조는 600여 년이 된다. 늘 허덕이는 생(生)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배워 길을 닦았는가!

2020년 1월 20일 이후 약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피해 5월 28~29일 1박 2일, 생의 오후, 갈증의 시간을 놓고 잠시 역사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은 감동이고 가슴설레는 기쁨이다. 호연지기만이 아니다. 김영환 회장을 비롯한 6분의 부부동반과 함께 28분이 여행을 떠난다.

강원도 삼척의 추암정(삼척 심씨 시조)·능파대→죽서루→천은사(동안사)→신라비 전시관→망양정→월송정→보경사 원진국사비→홍해 권무정·창덕사에 이르는 길이다.

2. 관동팔경(關東八景)과 관동별곡(關東別曲)

▣ 관동팔경(關東八景): 18세기 지도 속 관동팔경은 ①통천 총석정(叢石亭), ②고성 삼일포(三日浦), ③간성 청간정(淸澗亭), ④양양 낙산사(洛山寺), ▲강릉 경포대(鏡浦臺), ⑥삼척 죽서루(竹西樓), ⑦울진 망양정(望洋亭), ⑧평해 월송정(越松亭)이다.

관동별곡에는 ▲송강 정철(松江 鄭澈)의 삼일포(三日浦), 죽서루(竹西樓), ▲송은 김광수(松隱 金光粹)의 억관동구유, ▲백곡 김득신(白谷 金得臣)의 관동별곡서, ▲보정 김정희(普亭 金正會)의 조발외금강, ▲척약재 김구용(惕若齋 金九容)의 삼일포, 사선정, ▲제정 이달충(霽亭 李達衷)의 삼일포 등이 있다.

통천 총석정은 북한에 있다. 고성 삼일포와 간성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의 탐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삼척의 해암정과 능파대를 비롯한 나머지 6,7,8경을 탐방한다. <관동1~5경은 관동팔경과 도모부여행지 참고>

▣ 북평 해암정(海巖亭)과 능파대(凌波臺): 해암정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3호로 <강원 동해시 추암동 474-5>에 있다. 삼척 심씨(三陟 沈氏)의 시조 심동로(沈東老)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제자를 가르치며 생활할 때 지은 정자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처음 짓고, 조선 중종 25년(1530)에 심언광(沈彦光)이 다시 지었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팔각지붕구조로 정면을 제외한 3면은 벽 없이 4척(尺) 정도의 문을 설치했다. 현판은 석종함(石鐘檻), 해암정(海巖亭), 능파대(凌波臺)가 있다.

능파대(凌波臺)는 세조 7년(1461)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린 공신이자, 단종 복원 운동을 좌절시킨 공으로 강원·평안·황해·함길 4도의 제찰사가 된 사우당(四友堂)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들러 '금강산의 해금강과 같다'라며 이름을 지은 것이 능파대이다. 또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예송논쟁으로 덕원으로 유배되어 가는 도중 들러 남긴 '풀은 구름과 어울리고 좁은 길은 비스듬히 몰아 든다.'는 뜻의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라는 글이 남아 있다. '석종함(石鐘檻)은 정자 뒤쪽의 바위들이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뜻이다. 척약재 김구용(金九容, 1338~1384)의 차운봉정 삼침심중서이시견기(三陟沈中書以詩見寄)가 있다.

▣ 관동六경 죽서루(竹西樓): 삼척시 상내동 오십천(五十川) 절벽 위에 위

치한 보물 제213호이다. 누각은 일반적으로 기둥이 층(層) 받침이 되어 마루가 높이 된 중층의 다락집을 말하나 죽서루는 주춧돌 대신 자연 암반과 자연 초석을 이용하여 기둥을 세워 축조했으나 양측 면의 간수가 서로 다르다. 북측 면은 2칸이나 남측 면은 3칸으로 한 건물에 2가지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통일성과 변화를 추구했다. 죽서루의 공포는 주심포(柱心包)와 익공(翼控)의 두 가지 양식으로 5칸은 주심포로 되어있으며, 좌우로 한 칸씩 증축된 곳에는 익공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성과 함께 변화도 추구했다.



▲죽서루 탐방

죽서루는 조선 시대에 일종의 관아시설로 활용된 누각으로 조선 시대 삼척부의 객사였던 진주관의 부속 건물이다. 그러나 죽서루의 건립연대와 건립자는 무명이다. 다만 죽서루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누각 동쪽에 옛날 죽장사(竹藏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만 전해오고 있으며, 일설에는 죽죽선(竹竹仙)이라는 명기의 집이 누각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려 명종 대(1171~1197)의 문인인 김극기(金克己)의 시 중에 죽서루 관련 시가 전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 12세기 후반 이전에 창건되었음이 분명하다. 고려말의 인물인 이승휴(李承休), 안선(安省), 김구용(金九容), 정추(鄭樞) 등이 죽서루 관련 시를 읊은 것을 보면 죽서루는 고려말에도 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말 선초(麗末鮮初)의 혼란기에 허물어졌으나 조선 태종 3년(1403) 당시 삼척부사 김효손(金孝孫)에 의해 옛터에 다시 증건했다.

죽서루의 현판은 5종으로 죽서루(竹西樓)는 작자 미상이고,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초서)는 숙종 36년(1710) 삼척부사 이성조(李聖肇), 죽서루(竹西樓; 초서)는 숙종 36년(1710) 삼척부사 이성조(李聖肇), 제일계정(第一溪亭; 초서)는 현종대(1660~1662) 삼척부사 허목(許穆, 1595~1682),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는 현종 3년(1837) 삼척부사 이규헌(李圭憲, 1896~1976)이 썼다. 죽서루 북측에는 송강 정철가사의 터 표석이 있고, 남쪽에는 용문바위와 성혈유적이 있다. 시문과 기문, 중수기 현판은 총 21종으로, 척약재 김구용의 취제삼척객사동상방벽(醉題三陟客舍東上房壁), 卜河 최사간(崔司諫)의 심중서동로(沈中書東老), 김수녕의 삼척죽서루화수목교(次三陟竹西樓臥水木橋), 정조(正祖)의 죽서루(竹西樓)가 있고, 백곡 김득신의 등죽서루(登竹西樓), 중추기성생원 여상(仲秋寄成生員 汝相), 차죽서루판상운(次竹西樓板上韻), 죽서루(竹西樓) 등이 있다.

▣ 천은사(天恩寺)의 동안사(動安祠): 천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의 말사로 758년(신라 경덕왕 17) 인도에서 온 3명의 승려인 두타삼선(頭陀三仙)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두타산의 네 모퉁이에 절을 지었다. 동쪽은 청련(淸蓮)을 가지고 와서 지상사(池上寺)를 짓고, 남쪽은 금련(金蓮)을 가지고 와서 영은사(靈隱寺)를 짓고, 북쪽은 흑련(黑蓮)을 가지고 와서 삼화사(三和寺)를 짓고, 서쪽은 백련(白蓮)을 가지고 와서 천은사(天恩寺)를 지었다고 한다. 천은사는 839년(문성왕 1) 범일(梵日)이 극락보전을 창건하면서 중창되었다. 1304년(충렬왕 30)에는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자신의 별장을 절에 시주하여 간장암(看藏庵)을 세웠고, 1322년(충숙왕

9)에는 이승휴의 맏아들 이임종(李林宗)과 승려인 차남 담욱(曇昱)이 증수하였다. 동안사(동안거사 이승휴의 사당)로 1995년 지락당 터 옆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사당 1동을 건립했다. 이후 이승휴 선생을 기리는 동안대제를 삼척시의 지원과 천은사 후원으로 매년 10월 3일 이곳에서 봉행한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산 동안사 (이승휴 사당)

이승휴는 고려 후기 우정언, 우사간, 전중시사 등을 역임한 관리. 문신으로 가리(加利) 이씨(李氏)의 시조이다. 1252년(고종 39) 4월 과거에 급제하였고, 1263년(원종 4)에 이르러 이장용(李藏用)·유경(柳暎)·유천우(兪千遇)·원부(元傅)·허공(許珙)·

박항(朴恒) 등에게 구관시(求官詩: 관직을 청원하는 시)를 지어 보냈고, 다음 해에 이장용과 유경의 천거를 받아 경흥부서기(慶興府書記)에 보임되었다가 내직으로 옮겨 도병마녹사가 되었다.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합문지후(閣門祗候)·감찰어사(監察御史)를 거쳐 우정언(右正言)이 되었으며, 이때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15개 조로 나누어 간쟁하였다. 우사간(右司諫)을 거쳐 양광충청도안렴사(楊廣忠淸道按廉使)가 되어 뇌물을 받은 관리 7명을 탄핵하고 가산을 적몰했다가 원한을 사 곧 동주부사(東州副使)로 좌천되었다. 이때부터 스스로를 동안거사라 하였다.

단모부(旦暮賦)는 동안거사 이승휴가 1296년 상락군개국공경조 김방경(上洛君開國公京兆, 金方慶)을 칭송하여 쓴 글로 한자 939자에 이른다. 주요 내용은 김방경의 행장과 충(忠), 의(義), 인(仁), 용(勇)과 지(知)와 모(謨), 한 가지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문무(文武)를 갖추어 수군과 육군을 다스려 나라를 구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어 평탄하게 대도를 이행해서 삼달존(三達尊), 녹야당(綠野堂) 지위에 이르렀다 했다.

공께서 원정(元貞) 2년(忠烈王 22년, 1296. 2) 이에 답신(公之答示)을 보냈다. 답신의 시문이 득도한 분의 글이라 칭송하고도 남는다. <참고자료: 충렬공김방경자료집성 P168~180>

▣ 관동七경 평해 망양정(望洋亭): 망양정은 기성면 망양리 해안에 처음 세워졌으나 1471년(성종 2)에 평해군수 채신보가 현종산 기슭에 옮겨놓았다. 1517년(중종 12)에는 비바람으로 정자가 파손되자, 다음 해 안렴사(按廉使) 유희인(尹希人)이 울진군수 김세우(金世瑀)와 협의하여 증수하였다. 그 후 1590(선조 23)에 평해군수 고경조(高敬祖)가 증수하였으며, 1690년(숙종 16) 숙종이 안원군(眼原君)에 편액(扁額)을 보내어 계판(揭板)하였다. 1854년(철종 5) 울진 현령 신재원(申在元)과 군승(郡承) 남치봉(南致鵬)이 망양정을 이축할 것을 의논한 뒤 향회(鄉會)에 제안하여 둔산 해안봉을 이축 장소로 정했으나 추진하지 못하다가 1860년(철종 11) 현령 이희호(李熙虎)가 군승(郡承) 임학영(林鶴英)과 함께 근남면 신포리 둔산동으로 이전하였다.

1957년 울진군과 경상북도 울진교육청의 주선으로 김용식(金容湜) 장성업(張聖業) 박승갑(朴承甲) 등으로부터 목재를 기증받아 보수하고 근남면 최중길(崔重吉, 1914~1979)의 설계로 1958년 낙성되었다. 이후 1979년, 1995년 부분 교체했으나 2005년 경북 북부권 문화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완전해체하고 새로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망양정은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의 다포양식 건물로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평면에는 통간의 우물마루를 깔았고 전후좌우에 계자난간을 두른 누마루 형식이다.

망양정 현판은 전임 군수였던 이태영(李台榮)이 썼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조선 숙종이 하사한 관동제1루라는 편액과 시, 정조의 어제시, 정추의 시, 시수경의 시, 임회의 시, 박란의 시, 아계 이산해의 시, 송강 정철의 시, 매월당 김시습의 시, 망양정의 상량문 등이 걸려 있다. 척약재 김구용의 기전자수거평해(寄田子秀居平海)와 원재 정추의 제평해망양정(題平

海望洋亭), 송은 김광수의 평해망양정(平海望洋亭)이 있다.

▣ 관동八경 평해 월송정(越松亭): 월송정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62의 2번지> 해변에 있는 관동팔경 중 제일 남쪽에 위치한 정자로 팔작지붕 주심포, 고상 누각으로 고려 시대에 창건됐다. 이후 조선 중기 관찰사 박원종(朴元宗)이 중건하였으나 1933년 향인 황만영 등이 다시 중건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이 이곳의 푸른 소나무와 흰 모래밭에서 응지(雄志)를 품던 도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숙종 때 송강 정철이 이곳을 찬미한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뾰뾰이 우거진 노송림과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은 가히 손꼽을 만하다. 망향정 관련 시문은 근재 안축의 월송정이 있다

▣ 울진 봉평 신라비 전시관: 울진 봉평 신라비는 국보 제242호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화길 15>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비 전시관은 총 3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다. 제1전시실에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실물을 전시하고, 비의 발견과정과 해석 등을, 제2전시실에는 삼국시대의 주요 석비 10기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전시하고, 제3전시실에는 우리나라 금석학의 계보, 시대별 비의 양식, 한자와 한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야외에는 울진지역의 송덕비 45기를 모은 비석거리, 그리고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35기의 국보급 석비와 고구려 평양성 석편 3개를 실물모형으로 전시한 야외 비석공원이 있다.

▣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寶鏡寺 圓眞國師碑): 원진 국사비는 보물 제252호(1963년 1월 21일 지정)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호>에 위치하고 있다. 찬자는 이공로(李公老)이고 서자는 김효인(金孝印)이다. 보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로 723년(성덕왕 22)에 일조대사(日照大師)가 세운 사찰이다. 원진국사는 고려 시대의 승려로 속성은 신씨(申氏), 호는 승형(承迥), 자는 영회(永廻)이며 원진(圓眞)은 시호이다. 13세 때인 1200년(신종 3)에 희양산(曦陽山) 봉안사(鳳巖寺)로 출가해 동순(洞純)에게서 배웠으며, 1201년 금산사(金山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원진국사비 탐방

보경사에 있는 이 비석은 1224년(고종 11)에 세워졌으며, 귀부(龜趺)는 화강암, 비신은 사암이다. 귀부와 대석(臺石)은 한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 비좌(碑座)는 폭이 배면과 거의 같은 정도의 넓이로 주위에 단엽(單葉), 44연판(蓮瓣)을 새겼으며, 그 위에 비신을 얹었다. 귀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처럼 조각하였고 거북 등에는 육각형의 무늬안에 왕자가 질서 있게 새겨져 있었다. 비석의 위쪽 양 끝을 귀점이 한 신석(身石), 둘레에는 당초문(唐草文)을 새겨 장식하였다. 비석 둘레의 조식은 고려시대 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수(螭首)가 없는 귀점이 형식도 비교적 하대에 속하는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충주 역정사지 대지국사탑비 등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제액(題額)은 원진국사비명으로 고려국 보경사주지 대선사(大禪師) 증시 원진국사(贈諡圓眞國師) 비명 병서(碑銘 并序)/ 통의대부(通議大夫) 추밀원(樞密院) 우부승선(右副承宣) 시국자감(試國子監) 대사성(大司成) 사자금어

대(賜紫金魚袋) 신(臣) 이공로(李公老)가 왕명을 받들고, 장사랑(將仕郎) 대 관서승(大官署丞) 겸 보문각(寶文閣) 교감(校勘) 김효인(金孝印)은 교칙(敎勅)에 의하여 쓰다.로 되어 있다.

▣ 흥해 권무정(勸武亭)과 청덕사(淸德祠): 권무정은 1761년(영조 37) 경상북도 흥해군수로 부임한 김영수(金永綬) 군수는 부임 첫해부터 고을 장로들로 하여금 인재를 뽑아 학문을 권하도록 학당을 세우고 활터를 세워 활쏘기를 연마한 장소이다. 당시 활쏘기 경시 풍조를 개탄하거나 조정에 무과시험 시행을 재촉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스스로 민병을 양성해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활터가 오늘날 권무정(勸武亭)이다.



▲청덕사 김영수 통제사공 참배, 옥산문화재연구원 회원과 함께

청덕사는 김영수 군수의 공덕을 기리며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당에 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있다. 1761년 부임한 김영수 흥해군수는 고을 백성들의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 학당을 설치하고 인재를 뽑아 권학을 장려하고 권무당이란 궁도장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궁술을 익히게 하여 관군과 합동으로 왜적을 막았다. 삼도통제사로 부임하여 통영 임소에서 순직하자 1811년 제자들이 청덕사를 창건하고 영정을 제작하여 매년 중앙절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청덕사 정원에는 상지(上之) 10년 병오(丙午) 1879년 5월 일/흥해군수 창녕 성대중(成大中) 근기(謹記)한 흥해구제기적비(興海九堤紀蹟碑)가 있고, 권무정에는 권무당기(勸武堂記), 신축제언기(新築堤堰記), 영당향사중수절목(影堂享祀重修節目), 기타 현판이 소장되어 있다

[3] 단모부 여행(旦暮賦旅行)을 마치며

첫날(28일)은 해암정을 비롯한 월송정을 끝으로 저녁 8시경 울진에 있는 '백년식당'에서 동해의 흥개로 저녁 식사를 하고, 백암온천 '스프링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29일)은 경북 보경사 원진국사비와 흥해 권무정·청덕사를 끝으로 포항에 들러 동해에서 잡은 싱싱한 회로 점심을 하고, 오후 2시에 포항을 출발, 서울 7시에 서울 도착, 교대역 '푸주옥'에서 수육과 설렁탕에 소주로 여독을 풀었다. 선조의 탐사 여행이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치밀한 여행계획을 수립한 김영환 회장과 김운만 총무, 여행지를 상세히 편집한 김태영 대총회 사무총장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여정을 한 편의 시로 담는다.

단모부 사행기(旦暮賦思行記)

1. 동해는 잠들어 푸르름을 이루고
남해의 출렁이는 파도는 바람에 차니
서해는 저물어 어둠이 드리워지네

푸르른 바다에 떠오른 태양이
빛바랜 지 800여 년
저문 육신의 푸른 사유는 역사의 길을 걷는다
2. 정난공신(충렬공)의 사적을 외우며
동해의 등대지기, 바람을 따라 이승휴의 길을 걷고
죽서루를 돌아 천은사에 머리를 조아리니
성현의 모습이 아련하고
울진 신라비를 참관하니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있네

망양정 월송정에 오르니 그 옛 동해의 숨결이 차고
보경사(일주문) 해탈문을 통해 원진국사비에 이르니
효인의 아득한 조상의 숨결이 가슴을 일렁인다
청덕사에 이르러 공홀한 백성을 돕고 나라를 지키사
내가 여기에 있음은 한 없이 작아지네
3. 팔경의 아름다움보다도 슬픈 역사의 길이 서러워
이제사(새롭게) 피어나는 듯
이제사(새롭게) 깨어나는 듯 가슴 벅차고
선조의 길이 길이였음에 내 가는 길에 길이 되리라

청명한 아침 햇살이 마음 구석에 이르니
어둠은 가시고 새날이 밝아오듯
저 깊은 희망이
새 역사를 밝히는 등대가 되리라

【참고자료】

관동팔경과 단모부 여행지(제15집)/2022.5.28. 안사연
충렬공김방경 자료집성/2012.10.12. 충렬공기념사업회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 8월 25일)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密)재형, (提)규원, (翼)성희 · 태용, (書)덕영, (正)태석

◎ 임원회비(이사)

- 10만원 : (典)태진 · 진희, (副)태형, (提)태권 · 태호 · 석웅 · 태현,
(按)사부, (翼)인회 · 용묵 · 수인 · 영환, (書)각영 · 정수

◎ 통상회비(일반)

- 5만원 : (密)운홍, (郡)재옥 · 태용 · 봉희, (文)민희, (都)재진, (大)태균,
(提)재응 · 상원, (翼)태흥 · 용일 · 재성 · 완식
- 3만원 : (郡)만희 · 재향, (副)하일, (按)영희 · 태관 · 원희, (翼)윤대 · 봉수
- 2만원 : (典)경희, (文)현철 · 명수, (提)태훈 · 태덕, (按)용호 · 재운 · 덕균,
(翼)정희 · 한영 · 봉수 · 태위 · 희식 · 희석 · 하묵 · 상현,
(書)세영, (豐山人) 두현

◎ 찬조금

- 50만원 : (郡)광문, (文)재원 • 35만원 : (郡)재근
- 30만원 : (翼)재진 • 20만원 : (都)정수, (翼)재영

- 10만원 : (郡)재철, (大)성무, (文)재만, (提)상두 · 세웅 · 익수,
(翼)진식(동진) · 준희 · 정묵 · 용서

◎ 평생회비

- 20만원 : (都)태선, (提)규성, (翼)재영 · 연교 · 수태

◎ 광고비

- 30만원 : (翼)진식 (주)양백문화재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총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2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총회